

이번엔 충청권 키우기...이대론 호남권 영원한 변방된다

국가균형발전 광주·전남이 나서야 하는 이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폭등에서 시작된 정부·여당 내에서의 국가균형발전 논의는 세종시로의 주요 국가기능 이전, 충청권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자체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시점 2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주거 수요를 위해 아파트 신규 공급, 기업 규제 완화 등 수도권 집중을 다시 촉발시키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산업·경제 정책,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충청권의 성장 지원 정책 등에서 철저히 소외된 호남권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시책에서마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에 이 같은 정부 정책을 우려하며, '수도권 집중의 해소와 아파트 가격 안정'을 넘어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호남권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요구하고자 한다.

◇국가균형발전, 수도권에서 멀고 낙후

한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정부가 추진중인 세종시 행정수도 프로젝트는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국가 전반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충청권이 비대해져 수도권과 '하나'가 되고, 이미 경제적 기반을 갖춘 영남권은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지만, 호남권만은 여전히 열악한 기반시설,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등 혁신 자원의 미흡, 민간 기업 투자 유치 어려움 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충청권과 강원권을 합친 중부권 인구는 1970년 636만명에서 2020년 720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3.3%(84만명), 영남권은 1970년 979만명에서 2020년 1291만명으로 지난 50년간 31.8%(312만명)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호남권은 1970년 697만명에서 2020년 571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8.0%(125만명)가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정책

주요 국가기능 세종시 이전

수도권 기업 규제완화 등 추진

호남 낙후도 심화 불보 듯

공공기관 2차 이전

낙후지수·인구감소율 반영

낙후지역 경쟁력 강화 핵심돼야

이 같은 추세는 고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으로의 주요 국가 기능 이전을 추진하고, 영남권은 현재의 인구와 경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꾸준히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 고령화에 허덕이는 호남권은 경제성, 효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서 정부 공모사업, 국비 투입 등에서 언제나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전

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유치에 실패한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대표적이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 오창이 1조원대 국책사업을 가져가면서 충청권은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연구개발 시설을 거머쥐게 됐다.

◇공공기관 2차 이전-낙후지수와 수도권 원거리가 중요 기준 돼야=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후 국가균형발전 관련 대규모 시책이나 프로젝트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차 이전의 효과 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2차 이전을 논의하고 있지만, 대전·충남까지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낙후지수, 수도권에서 원거리 지역 등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 없이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등을 동일 선상에서 두고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현재의 격차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확장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 362개 중 70.2%에 해당하는 254개 기관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에 몰려있으며, 영남에는 74개(20.4%)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에는 고작 29개(8%)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정부가 인구감소율, 균형발전위원회 균형 지표, 지방소멸위험지수 등의 지수를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전국 분포도, 기존 혁신도시의 성과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100년 대계 수립 시금-낙후지역 경쟁력 강화가 핵심=정부와 여당이 행정수도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지역격차가 그대로 유지 또는 심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구·산업기반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낙후·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함에도 지금까지 정부의 재정 투입은 '빈익빈 부익부' 방식이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지역산업 연관관'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산업 산출액에서 수도권은 46.8%를 차지했다. 이어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이 18.0%,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은 12.8%였고 호남권은 9.8%에 불과했다. 산업기반이 열악하고,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호남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아말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해방 이후 경부선을 축으로 해 수도권과 영남권만을 성장시키는 불균형 경제 정책, 수도권에 가까운 충청권에 과학기술투자, 세종시 조성의 정책에서 호남권만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따라서 호남권의 인구, 경제기반 등을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위 이낙연 25.6%...이재명과 6% P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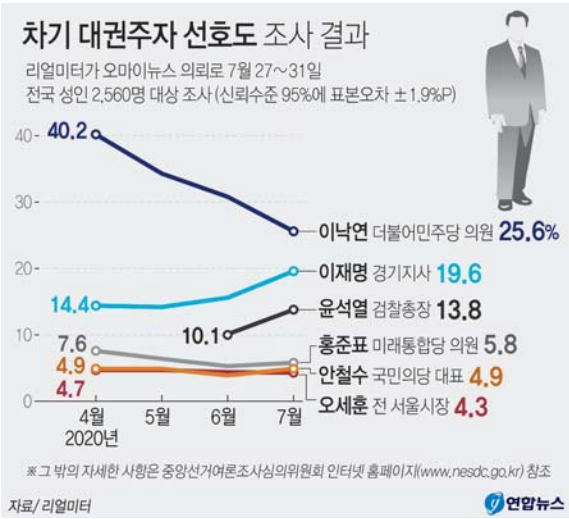
리얼미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윤석열 3위 자리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지지율이 3개월째 하락,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호도도 오르면서 3위 자리를 다졌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성인 25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낙연 의원은 25.6%, 이재명 경기지사는 19.6%로 각각 집계됐다.

두 사람의 선호도 격차는 6.0%포인트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다. 오차범위 밖이지만 상당히 근접했다.

이 의원의 선호도는 지난 3월 29.7%에서 4월 40.2%를 기록, 단숨에 40%로 치고 올라갔다. 하지만 4월을 정점으로 5월 34.3%, 6월 30.8%에 이어 7월 다시 20%대로 떨어졌다. 그의 선호도는 대부분 계층에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서울·충청·PK 순으로 연령대별로는 50대·70대 이상·60대·40대 순으로 떨어졌다. 반면 이 지사의 선호도는 4월 14.4%에



서 5월 14.2%로 소폭 떨어진 뒤 6월 15.6%로 반등했으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7월에는 20%대에 거의 근접하며 최고치를 두 달째 경신했다. 이 지사의 선호도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상승한 가운데 강원·충청·TK·서울 순으로 많이 뛰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20대·40대·60대·30대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6월부터 새로 대상에 포함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호도는 7월 조사에서 전월보다 3.7%포인트 상승한 13.8%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민주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 <3> 박주민 후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에 도전하는 박주민 의원은 4일 5·18진상규명특별법 등 지역 현안 법안과 관련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5·18 관련 법안과 여순사건특별법을 거론하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등의 지원은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할 일이다"며 "이미 역사적인 규명에 있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광주·전남지역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박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1차 공공기관이전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규모적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계획된 공공기관 외에도, 광주의 헌법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등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하여 대한민국이 지역과 수도권으로 나뉘지 않는 전국적 생활권으로 만들어, 지역 균형 발전을 더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이전되어 있는

5·18,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조속 통과에 최선

에너지밸리 조성 도울 것

내년 보궐선거 후보 내야

기관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전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다"면서 "광주·전남의 경우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과 연계하여 '에너지밸리' 조성에 관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명분이나 정당성에서도 충분히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한다. 광주·전남의 '에너지밸리' 조성을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소통구조가 더욱 수평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것이 저의 당 개혁 공약 중 하나다. 국회의원과 당의 소통 강화는 당연한 전제다. 초선 국회의원이라도 지금의 국민의 대표인 각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출마해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반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후보를 공천하여 선거과정에서 국민들께 적절한 반성을 통한 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에 대해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책임있는 자세로서 중요한 모습이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과 수도권의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 차이가 있게 된 것은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한 역량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도와, 지역에서의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광주·전남의 주민들께서 상대적으로 소외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당이 광주·전남에서 펼치는 정책과 광주·전남의 주민들이 원하시는 정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며 "지역적 과제에 대해서도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들 그리고 주민들과 전문가가 함께 지역의 의제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거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땀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시소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